

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지역별 청년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5-03-17 18:07:25

청년 농업인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청년농 소통간담회 참석자들 모습 / 사진: 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유승철)가 14일 청사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는 청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농지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농지 임대 및 매매지원 정책 현황 및 효율적인 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지은행 활용을 통한 농지 이용의 다양한 사례와 농지 이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안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63농가에 약 39ha를 지원해 2030세대 및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었다.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승철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사회부

나경화 기자

nakh67@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콘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